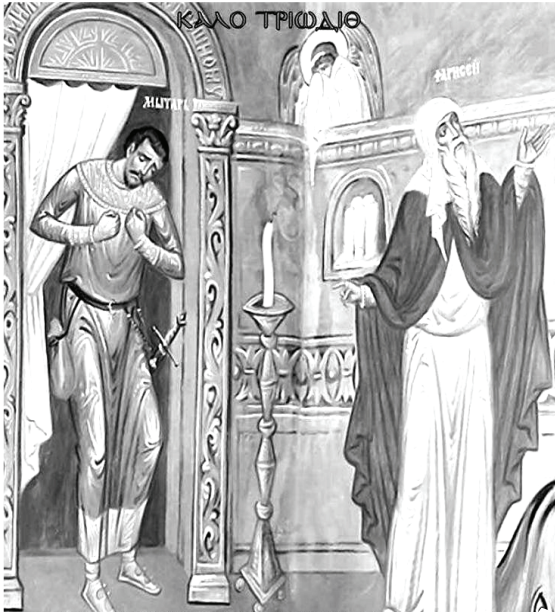




정교회 주보

정교회 한국대교구



세리와 바리사이파 사람

세리와 바리사이파 사람 주일/뜨리오디온 시작

성 아가티 순교자

제8조 / 조과복음 11

성 요한 크리소스토스 성찬예배에서

- 주 예수 그리스도 입당 축일 제2응송 / 164, B 157
- 제8조 부활 찬양송 / 82, A 218
- 주일 입당송 / 14, A 42
- 주 예수 그리스도 입당 축일 찬양송 / 164, B 157
- 성당 찬양송
- 주 예수 그리스도 입당 축일 시기송 / 164, B 159
- 사도경 : 디모테 후 3,10-15 / 봉독서 407
- 복음경 : 루가 18,10-14 / 133, B 85
- 기타는 보통 주일과 같음.

성 보르피리오스의 지혜로운 말씀 “반항하는 아이와 좋은 아버지”

좋은 아버지는 아이가 자라면서 반항심이 거세지고 적대시하는 상황이 오더라도 그 아이에 대한 관심이 변함이 없어야 한다고 성인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어른이 될 때까지 경험이 없어 어리석은 행동들을 하게 되고 그것은 부모를, 특히 아버지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의 반항심이 거세지고 적대시하는 상황에서 좋은 아버지의 사랑과 아이를 잘 다루는 기술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가끔 좋은 아버지의 본

분을 망각하고 경찰관과 같은 엄한 모습이 되어 자신의 아이에게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하기도 합니다.

만약 성장기의 어린 아이가 자신의 아버지를 끝없는 양보와 인내하는 좋은 아버지로 인식한다면 그가 죽을 때까지 자신의 아버지의 이름을 언급하며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성인이었습니다. 내가 청소년기에 방황을 하였을 때 그것을 느끼며 보았습니다.”

“자비는 겸손한 자에게 합당합니다”(루가 18,10-14)

사순대재를 맞이하기 위한 금식 준비 기간이 오늘 ‘세리와 바리사이파 사람 주일’로 부터 시작하여 앞으로 3주간 계속됩니다. 사순대재 기간은 일 년 중 가장 힘들게 영적 투쟁을 해야 하는 고된 기간이기 때문에 이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갖는 것입니다. 이 기간에 교회가 강조하는 것은 대사순절을 맞기 위해 먼저 준비해야 할 과정으로 겸손한 마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경의 말씀을 보면 세리가 성전에 올라가 하느님께 어떠한 모습으로 기도를 드렸는지를 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세리는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 엄두도 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오, 하느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며 하느님의 자비를 먼저 간청함으로써 하느님으로부터 올바른 사람으로 인정받고 의롭게 되어 집으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세리들은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에게서 각종 세금을 걷어 로마에 바치는 일을 하였습니다. 이때 세리들은 자신들의 몫을 불리기 위해 마음대로 세금에 여러 항목을 추가하여 세금을 부풀려 걷었기 때문에 유대인들 사이에서 세리들은 악덕 업자로 낙인찍혀 죄인처럼 취급당하고 멸시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자신이 한 일에 대해 잘못을 깨닫고 가슴을 치며 용서를 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바리사이파 사람은 자신은 죄가 전혀 없는 사람처럼 자신이 얼마나 떳떳하게 행동했는지를 자랑하며 심지어는 세리와 비교하며 자만에 빠져 하느님께 기도드렸습니다.

세리와 같은 겸손한 기도가 사람을 의롭게 하듯이 모든 성인들도 하느님의 자비

와 용서를 구하는 낮은 마음의 자세를 지니고 살아갑니다. 하느님의 자비 없이는 그 무엇도 할 수 없음을 깨닫고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성인들은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자비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주시고 병든 육신과 영혼을 치유해 주십니다. 하느님의 자비를 받아 구원받는 모든 사람들은 성 사도 바울로의 말씀처럼 쉬지 않고 하느님의 자비를 간청했던 성인들입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끊임없이 외치며 드리는 우리의 간청 기도는 바로 하느님의 자비를 받아 의롭게 되는 거룩한 삶의 길이기도 합니다.

하느님께 자비를 간청할 때 겸손한 마음 없이는 진정한 기도가 생겨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겸손해질 때 비로소 하느님의 자비를 진심으로 바라게 됩니다. 자신이 흠으로 창조되어 흠으로 돌아가는 존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창조주이신 하느님을 믿고 의지하는 데서 바로 겸손이 나오는 것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느님의 배려와 돌봐주심이 없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느님의 자비가 우리를 의롭고 올바른 사람으로 만들어 줍니다. 힘들고 고달픈 고통 속에서 외치는 이들의 소리; "오!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는 이 겸손한 기도가 모든 이들을 치유하고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성서 말씀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겸손으로 시작되는 트리오디온 기간을 맞이하여 주님의 은총과 축복으로 의로운 사람이 되어 거룩한 사순대재에 임하게 되길 기원합니다.

▶ 다니엘 나창규 대신부



엄마...!

정교회의 전통에 따르면, 우리 주님의 성전 입당 축일인 2월 2일을 어머니날로 축하한다.
모든 어머니들에게 아래의 이야기를 바친다.

“주님, 저를 세상에 보내실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갈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주 약하고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너의 수호 천사가 너를 위해 항상 그곳에 있을 것이며 너를 돌보아줄 것이다.”

아기는 다시 물었다. “그러면 사람들의 언어를 알지 못하는 제가 어떻게 그들이 말하는 것을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하느님께서 대답하셨다. “너의 수호 천사가 가장 아름답고 적절한 말을 말해줄 것이며, 네가 항상 들어왔던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들려줄 것이다. 그가 너를 보살피줄 것이고, 어떻게 말해야할지를 많은 인내와 사랑으로 너에게 가르칠 것이다.”

“그럼 누가 저를 보호해줄 것인가요?”
“너의 수호 천사가 너를 보호해줄 것이다. 혹 그가 너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는 한이 있더라도 말이다.”

아기가 낙원을 떠나 지상에서 태어나야할 때가 왔을 때, 아기는 서둘러서 하느님께 물었다.
“나의 주님, 이제 저는 이곳을 떠나려 합니다. 제 수호 천사의 이름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겠습니까?”
그러자 주님은 대답하셨다. “너는 그저 단순히, ‘엄마!’라고 부르거라.”

▶ 아타나시아



소 식

대교구

■ **대교구의회** ▷ 2월 14일(화) 2017년 대교구 의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대교구 소속의 각 성당 의회 구성원 여러분은 꼭 참석하여 교회를 위한 좋은 의견들을 제시해 주시고 같이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 2017년 2월 14일(화) 12시 : 점심 식사 / 오후 1시 : 대교구 의회

· **장소** 대교구청 회의실

■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 구세주 변모 수도원에 지난 1월 신현 축일 후부터 그동안 사용하였던 지하수에 물이 고갈되어 물 없이 어렵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새로운 지하수를 찾고 발굴하는 공사를 하는 등 여러 시도를 하였지만 성과가 없었다가, 하느님의 도움으로 지난 1월 30일에 다시 지하수를 찾았습니다. 하느님께 감사드리면서, 그동안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서울 성 니콜라스 대성당

■ **세례를 축하합니다!** ▷ 지난 1월 30일(월)에 세 분의 대주교 축일을 맞이하여 미국인 여성인 LEAH CHRISTINE EYERLY가 세례성사를 통해 에반겔리아 세례명으로 정교인이 되었습니다. 하느님의 은총으로 생의 마지막까지 올바른 정교인으로 신앙 생활을 해나가길 기원합니다.

부산 성모 히보 성당

■ **겨울 수련회 결과** ▷ 지난 1월 20일부터 22일까지 2박 3일 동안 62명의 유·초·중·고등학생들이 모여 수련회를 무사히 잘 보냈습니다. 『이해와 사랑』의 주제로 먼저 예수님을 이해하고 사랑하여 믿음의 성숙을 갖고, 이웃을 사랑하는 실천적인 정교인의 삶을 배우는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야외 활동과 게임, 장기 자랑 그리고 성서 퀴즈, 성가 배우기 등 짧은 시간 동안 다양하고 알찬 프로그램을 통해서 친교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수련회를 위해 수고해 주신 교사분들과 봉사자분들께 감사드리며 하느님의 축복과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성 테오도로스 장군대순교자
2월 8일